

선박 대테러 및 해적 대응 역량 높인다

- 관계부처 및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국내외 테러 정세 및 해적피해 사례 등 공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9일(수) 아스티호텔 부산에서 선박 대테러와 해적피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테러 및 해적피해와 관련하여 보안업무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이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올해도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보안기관·한국선급 등 관계기관 담당자, 국제항해선박 소유자, 특수경비업체 종사자, 해운·원양업계 종사자 등이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홍해에서의 선박 피랍 등 국내외 선박 테러 정세, 선박 보안 관리 시 유의사항, 청해부대의 업계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해적피랍 경험이 있는 선원과 선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직접 듣고 해적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불법 해상 환적, 신규·중고선박 반입 제한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미나에 선박 보안 관련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논의된 내용이 현장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선박 테러와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계기관 등에 즉각 공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문승록 (044-200-5851)
(공동)	외교부	책임자	과 장	이은주 (02-2100-8312)
	수출통제제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함정주 (02-2100-8338)

참고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개최 계획

□ 개 요

- (배경) 해상테러 및 해적피해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세미나 형식) 실시

* (근거) ①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9조, 시행규칙 제50조, ②국제선박항만규칙(ISPS Code) 13규칙 ③해적피해예방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일시/장소) '23.11.29(수) 13:30 / 아스티호텔 부산

- (대상) 외항선사, 지방청 보안업무 담당자 등 약 200명 내외

□ 주요 내용

- (선박보안) 최근 국내외 테러정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해상부문) 관련 유의사항 및 선박보안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 (해적피해 예방)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해적동향(해적피랍 선원 토론), 청해부대 작전 시 협조사항, 특수경비원 무기사용 기초지식 등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분	· 등록 및 세미나 준비	
14:00~14:05	5분	· 인사말씀	해사안전관리과장
14:05~15:25	80분	· 테러정세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해상부문) 관련 유의사항 등	보안기관, 외교부, 울산청
15:25~15:45	20분	· 휴식시간	
15:45~17:15	90분	· 해적행위 피해예방 등	국방부, 한국선급, 해상특수경비업체
17:15~17:20	5분	· 마무리 말씀	해사안전관리과장